

# ‘아무’의 형태·통사·의미에 대하여\*

구종남

(전북대)

**Koo, Jong-Nam. (2015). On the the morphology, syntax and semantics ‘amu’.**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3(3), 85-107. This paper has two goals. The first one is to explain why ‘amu’(아무) cannot be realized in usage form in itself, but should they have the form ‘amudo’(아무도), ‘amuna’(아무나), and also to show that ‘amureohada’(아무리하다) can be realized in the same way as ‘amu’ based on the semantic feature of ‘amu’. And the second one is to elucidate the morphological structures, lexicalization, and the grammatical properties(including negative polarity) of ‘amu’-based words by way of the semantic features of ‘amu’. ‘Amu’ cannot be referential unlike other indeterminate pronouns because it has semantic feature [-fixed]. In middle Korean it didn’t have the feature, but the referentiality has changed in contemporary Korean. Because of that it needs particle ‘-do(도)’, or ‘-na(나)’ to be realized in usage forms. ‘Amureohada’ also needs the special connective endings ‘-geodeun’(-거든), ‘-deunji’(-든지), semantically corresponding to ‘-do’, ‘-na’, to be realized. I discussed that all the forms and semantic features of ‘amu’-based words can be explained by the contemporary semantic feature of ‘amu’ except for the fossilized pronouns.

**주제어(Key Words):** 의미 자질(semantic feature), 부정 대명사(indeterminate pronoun), 어휘화(lexicalization), 문법 자질(grammatical property), 지시성(referentiality), 특정적(specific), 극성(polarity).

## 1. 서론

현대국어에서는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하였는바, 본고에서는 ‘아무’가 그 의미 자질로 인하여 실현 형식이 제한되며 실현형도 극성 자질을 갖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아무리하다/

---

\* 이 논문은 2015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아무렇다'의 실현 방식을 논의하고, '아무'의 의미 자질을 바탕으로 20여 항목에 이르는 '아무' 계열 어휘들의 형태적 구조와 어휘화 과정 및 문법 자질을 밝히고자 한다. 현대국어에서 '아무'는 형태, 통사, 의미 면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는 사전(표준국어대사전)에 대명사와 관형사로 기술되어 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대명사 '아무'에 격조사가 결합될 수 없고, 특정한 보조사인 '-도', '-나' 등과 결합된 방식으로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형태상 특이한 모습으로만 나타나고, 담화 범위의 자매항을 선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사적으로 특이하며, '아무도'는 부정 문맥에서만, '아무나'는 긍정 문맥에서만 나타나 극성을 띠는 점에서 의미상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가 관형사로 쓰일 때도 수식받는 머리 명사에 대해 보이는 조사 제약이나 '아무' 명사구의 극성 제약은 '아무'의 경우와 동일하다.<sup>1)</sup> '아무'에 '-리하다'가 결합되어 파생된 형용사 '아무러하다'도 어간 그 자체에 어미가 결합된 형태로는 쓰이지 못하고 의미적으로 '-도', '-나'에 대응되는 연결어미 '-거나', '-든지' 등과 같은 몇 가지 어미의 도움을 받아서 극성을 띠는 문맥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현대국어에는 '아무'를 어기로 가진 20여 항목의 복합어와 파생어 및 어휘화된 형식이 쓰인다. '아무'가 부정대명사로 쓰일 때 격조사와 결합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특정한 방식으로만 실현되는 것은, 적어도 현대국어 이전에 '아무'는 다른 부정(대명)사와 같은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어 격조사와 결합 제약이 없었으나 의미 자질이 변하여 조사가 결합될 수 없는 속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가 특정한 보조사 '-도', '-나'와만 결합되어 실현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보조사가 조사와 함께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체언 '아무'와 상호 작용하여 이를 언어적 실현형으로 만드는 특별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일정 시기까지는 격조사와의 결합 제약이 없었으며, 따라서 극성과도 무관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문제는 '아무의 어떤 의미 자질 변화가 격조사와의 결합을 제약하며 왜 특정한 보조사와만 직접 결합될 수 있고, 이 경우 왜 극성을 띠는가이다.

또한 '아무'를 어기로 하여 다양한 품사로 굳어진 형식으로 쓰이는 다른 '아무' 계열 어휘들이 존재하는바<sup>2)</sup>, '아무'의 의미 자질의 변화 시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조어 방식과 어휘화 및 극성을 포함한 여러 문법 자질이 밝혀져야 한다.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쓰이는 부정대명사, 관형사적 용법의 '아무', 그리고 '아무'를 어근으로 하는 '아무러하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곡용(관형사 '아무'의 경우는 수식받는 명사의 곡용)과 활용에서 '아무'의 의미 자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어휘화된 '아무' 계열 어휘들이 '아무'의 의미

1) 사전에 '아무'를 대명사로 처리하고 있으나 중세/근대국어와는 달리 현대국어에서 '아무'의 지시 관련 속성이 변하여 '아무'에 격조사가 결합되는 용법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거의 사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 아무', '최 아무'의 용법과 '아무 날, 아무 시'와 같이 '아무'가 관형사처럼 쓰이는 예도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하기 전의 용법이 화석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 언어에서 '아무'가 특별한 보조사와 결합되지 않고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아무' 계열 어휘들은 <표 1> 참고.

자질 변화 이후에 어휘화된 것이라면, 이들 어휘들도 변화된 ‘아무’의 의미 자질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이들 어휘들의 극성을 포함한 특정한 문법 자질은 바로 ‘아무’의 의미 자질에서 기인되었을 것이다. 반면 이들이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하기 전에 어휘화되어<sup>3)</sup> 굳어진 것이라면 이들이 어떻게 어휘화되었는지 그 과정과 원리가 밝혀져야 하고, 이들이 의미 자질이 변한 ‘아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시적인 관점에서 ‘아무’의 변한 의미 자질과 관련하여 극성과 같은 문법 자질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아무’가 근대국어 일정 시기까지는 다른 부정대명사와 같이 출현 형식에 제약이 없었으므로 현대국어에서 격조사의 제약이나 ‘-도’, ‘-나’와 같은 일부 보조사와만 결합하여 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18세기 말 이후부터 추정되는 ‘아무’가 [-특정적]으로만 해석되게 하는 의미 자질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보고,<sup>4)</sup> 먼저 그 의미 자질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고 ‘아무’의 실현 방식과 원리를 살펴본다. 나아가 ‘아무’의 파생어 ‘아무리하다’의 실현 방식과 그 원리를 ‘아무’의 실현 방식과 동일한 원리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여 항목에 이르는 ‘아무’를 어기로 하는 어휘들을 명사, 대명사, 관형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등 품사별로 나누어 형태 구조와 어휘화, 문법적 자질을 논의한다.

‘아무’가 왜 격조사와 결합될 수 없고 특정한 보조사와만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줄고(2011)에서 ‘아무’의 의미 자질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을 시도하였는바, 본고에서는 그 논지에 기초하여 ‘아무’를 어근으로 하는 ‘아무렇다’도 ‘아무’의 실현 방식과 동일한 원리와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는 ‘아무’의 의미 자질과 그 실현 원리를 ‘아무’의 [-고정적] 의미자질과 보조사 ‘-도’의 ‘역동’, ‘-나’의 선택의 의미에서 기인하는 담화 세계상의 자매항과 극성 원리로 설명한 줄고(2011)를 보완하고 그 논의의 근본적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나아가 이 논의는 ‘아무리하다(아무렇다)’에서 여러 어휘가 어휘화되었는바, 이들 어휘들의 ‘아무’의 의미 자질의 변화 이전에 형성되었든 그 이후에 형성되었든 왜 특정한 형식으로만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때로 특이한 문법 자질을 갖는지에 대한 원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전에서 ‘아무’ 계열 어휘들의 처리 방식에 대한 몇 가지 문제도 제기된다.

3) 여기서 어휘화는 단순히 굳어진 형태로 쓰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김중효(2000)에서는 ‘누구’, ‘무엇’ 등 의문사의 부정사적 용법이 18세기 말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바, 이런 현상이 이미 부정사로 쓰이던 ‘아무’의 자질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때(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가정이므로 앞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음.) 이의 자질 변화는 적어도 이 시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아무’의 의미 자질 변화 과정을 밝히는 작업은 그 자체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나 이 문제는 본고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아니다. 근대국어 일정 시기까지 ‘아무’의 의미 자질이 현대국어와 달랐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아무’의 의미 자질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사실만 전제된다면 본고의 논리 전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특별한 경우이겠으나 ‘아무’에 격조사가 결합되는 것은 20세기 초에도 나타나지만 이는 이전 용법의 흔적이고 일반적인 용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2. ‘아무’의 실현형과 의미 자질

### 2.1. ‘아무’의 실현 형식

‘아무’의 의미 자질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의 의미 자질의 특성과 이 형식의 실현 원리를 밝힌다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 ‘아무’에 ‘-러하다’가 결합된 ‘아무러하다’의 활용형의 실현 방식과, 활용형 자체가 축약된 형태로 굳어져 어휘화된 형식이나 ‘아무’를 어기로 하는 합성어(compound word) 및 어휘화한 형식들의 형성 원리와 이들의 문법 자질을 설명하기 위해 전제조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체언은 격조사가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아무’와 관련하여 특이한 사실은 ‘아무’에는 격조사가 통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는 오직 보조사 ‘-도’나 ‘-나’가 결합된 ‘아무도’와 ‘아무나’ 형식으로만 실현될 수 있으며 이들은 극성을 띠어 ‘아무도’는 오직 부정 문맥에서만, ‘아무나’는 긍정 문맥에서만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아무’가 관형사로 쓰일 때도 ‘아무 + N도/(이)나’ 형식으로만 실현되며 이들도 극성을 띤다. 이는 역시 부정(대명)사로 쓰이는 ‘누구’, ‘무엇’, ‘어떤’은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가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다. ‘아무’가 중세국어는 물론 근대국어 일정 시기까지 이런 특징을 갖지 않고 다른 부정대명사처럼 격조사 결합 제약도 없었으며 극성을 띠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무’의 의미 자질이 근대국어시기부터 변하기 시작하여 현대국어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

### 2.2. ‘아무’의 의미 자질

그렇다면 문제는 ‘아무’의 의미 자질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이다. ‘아무’는 대명사적 표현이므로 이의 의미 자질 변화는 공시적으로 지시성(referentiality)에서<sup>6)</sup> ‘아무’와 ‘누구’, ‘무엇’, ‘어떤’ 등 다른 부정(대명사)와 차이를 보인다. ‘누구’, ‘무엇’, ‘어떤’은 [+특정적]으로도 쓰이고 [-특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으나 ‘아무’의 실현형 ‘아무도/나’ 형식은 [-특정적]으로만 쓰일 수 있다<sup>7)</sup>. ‘아무도/나’가 [-특정적] 자질을 가진다는 사실은 담화 세계에서 화자가 갖는 지시 의도에서 비지시적(non-referential) 자질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무도/나’는 본질적으로 [-지시적]이라는 자질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가 [-지시적]으로만 쓰인다는 것은 ‘아무’로는 담화 세계에서 특정한 대상을

6) 지시성((referentiality)과 관련된 문제는 Givon(1984: 390 참고).

7) ‘이로가 어떤 책을 샀어요.’를 발화할 때 화자는 특정한 책을 염두에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이 전자의 경우에는 [+특정적]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적]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가 아무 책을 샀어요’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특정성을 논의할 수 없으며 ‘이로가 아무 책도 안 샀어요’, ‘이로가 아무 책이나 샀어요’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화자는 특정한 책을 염두에 둘 수 없으므로 ‘아무’가 [-특정적]으로만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염두에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아무’는 그 자체로는 어떤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무’가 격조사와 결합될 수 없는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그동안 ‘아무’가 격조사와의 결합에서 제약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몇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으며<sup>8)</sup>, ‘아무도’가 부정극성을 띠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시도되었다.<sup>9)</sup> 그러나 그 이유를 ‘아무’의 의미 자질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나아가 ‘아무’가 실현될 때, 왜 ‘-도/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지 두 가지 문제를 관련지어 설명하려 시도한 견해는 졸고(2011)라고 할 수 있다. ‘아무도/나가 [-지시적] 자질만을 갖는다는 것은 담화 세계에서 ‘아무’라는 표현 형식 자체로써는 구체적인 대상의 실체를 포착하여 가리킬 수 없는 것을 나타낸다.<sup>10)</sup> ‘아무’에 격조사가 결합될 수 없는 것을 볼 때 조사는 한정하여 포착할 수 있는 대상에 결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무도/나가 어떻게 [-특정적], [-지시적]이라는 자질을 갖게 되었으며 ‘아무’는 왜 대상을 한정하여 가리킬 수 없고, ‘아무도/나’를 [-지시적]으로만 해석되게 하는 [-특정적] 자질을 갖는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되며 ‘아무’는 어떻게 ‘아무도/나’의 형식으로 실현되는지가 문제다.<sup>11)</sup>

- 
- 8) ‘아무’의 의미 자질에 대해 비교적 직접적으로 접근한 논의는 김미형(1994)이다. 그는 ‘아무’는 한정되지 않은 개체의 무리를 나타내므로 통사적인 제약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무’가 지시 대상을 아는 경우에 쓰인다거나 ‘무엇’ 등이 지시 대상을 모르는 경우에 쓰인다는 설명은 납득되기 어렵고, ‘아무’가 지시물 집합의 무리를 지칭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아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논의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고석주(2002, 2008)에서는 ‘아무’의 조사 제약과 관련하여, 격조사 ‘가’, ‘를’은 선택 지칭하는 의미 기능을 갖기 때문에 불특정함을 나타내는 ‘아무’와의 결합이 제약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으로는 역시 ‘아무’가 다른 격조사도 결합될 수 없으며 불특정함을 나타낼 수 있는 ‘누구’, ‘무엇’은 이런 격조사의 결합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 9) 시정곤(1997)에서는 ‘아무도’가 부정극성을 띠는 이유는 전체 집합의 불특정 원소를 가리키는 ‘아무’에 ‘-도’가 결합하면서 전체 집합 모두를 포함하게 되고 ‘아무’에 부정서술어가 결합됨으로써 부정극성을 띠는 것으로 보았으나, 불특정 요소에 ‘-도’가 결합하여 전체 집합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무도’의 실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아무나’가 성립하는 이유와 이 또한 긍정 극성을 띠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최기용(1998)에서는 ‘아무’ 계열의 부정극성이 모두 ‘아무’의 [+부정] 자질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아무도’의 부정극성은 ‘-도’와 화용적 맥락에 따라 척도상 가장 상위에 오는 표현이 함께 만들어 낸다고 보고 있다. 이 논의도 ‘아무’가 부정 자질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안고 있다.
- 10) 다른 부정(대명)사는 담화 세계에서 [±특정적]으로 쓰인다. 그러나 [-특정적]으로 쓰여도 그 실체를 담화 세계에서는 모르지만 표현 자체로는 대상을 포착할 수 있어 지시가 가능한 것인데, ‘아무’는 그렇지 않다. 다른 부정사의 불특정적인 쓰임은 ‘않’의 문체와 관련되지만 ‘아무’는 그 대상을 한정하여 지시할 수 있는 표현 자체의 능력이 없으므로 이는 표현 자체의 속성이 관련된 문제다.
- 11) 이금희(2013)에서는 ‘아무’가 [±특정성]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인데 [-특정성] 대상만을 나타내는 것은 그 의미 영역이 축소되어 [특정] 자질을 ‘누구’ 계열에 내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아무’는 부정극어와 자유선택의 의미로만 쓰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유선택도 전체 대상이나 집단을 나타낼 때만 쓰인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도 역시 ‘아무’가 특정 조사와만 결합하여 성립되는 형식이라는 것을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역시 ‘누구’ 계열도 [-특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왜 ‘아무’만 이런 제약을 보이

줄고(2011)에서는 ‘아무도/나’가 [-지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가 외연(denotation)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고정적] 자질로 변한 데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고정적]이라 함은 표현/명칭이 어떤 대상을 한정하여 가리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sup>12)</sup> 줄고(2011)에서는 ‘아무’도 다른 비한정적 표현인 부정사와 같이 자질 변화를 겪기 전에는 [+고정적] 자질을 가져 개체를 지지할 수 있었으나 [-고정적] 자질로 바뀔 때 따라 ‘아무’ 자체만으로는 어떤 대상을 한정하여 지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파악했다.

‘아무’에 격조사가 결합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무’의 [-고정적] 자질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조사는 한정적 존재에만 결합되는 것이다. 줄고(2011)에서는 표현 자체로는 한정하여 지시할 수 없는 이런 의미 자질을 지닌 ‘아무’가 실현되어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보조사 ‘-도’의 ‘역동’의 의미, ‘-나’의 ‘선택’의 의미에 의하여 한정적 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아무’에 ‘-도’가 결합되면 부정 문맥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전칭 부정으로만 해석된다.<sup>13)</sup> ‘아무도’의 성립은 바로 이 전칭 부정에 의해 ‘-도’에 의해 설정되는 담화세계의 자매항을 포괄적으로 한정하여 지시할 수 있는 원리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바로 부정 문맥에서 ‘아무도’의 외연이 고정되고 확정되어 어떤 실체적 존재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가 ‘\*아무도 왔다.’와 같은 긍정문에서는 쓰일 수 없는 것은 긍정문에서는 ‘아무도’가 담화 영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언급하여 전체 대상을 지시할 수 없어 한정적 지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무’에 ‘-나’가 결합되면 긍정 문맥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여럿 가운데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의미를 갖는바, ‘-나’가 결합된 ‘아무나’는 ‘-나’에 의해 설정되는 담화 영역의 어떤 자매항이든 상관없이 무작위적인 선택(자유 선택)을 나타내는데, 이는 곧 선택되는 것, 즉 자매항 중에서 한정적으로 지시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무’의 [-지시적] 자질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무작위적인 선택이 한정적인 실체로 인식될 수 있어 ‘아무나’ 형식이 성립하는 것이다.<sup>14)15)</sup>

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 12) 이는 곧 표현(명칭)과 대상 간에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관계로서 모든 표현은 어떤 지시 대상이 전제되는 점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지시의 고정성을 갖는다. 이는 곧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표현 대상인 외연을 구체적으로 한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표현은 대상의 외연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을 의미하며 곧 표현의 대상은 확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현대국어 ‘아무’의 고유한 의미 자질은 [-한정적]이나 [-확정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담화세계가 전제되는 대명사나 부정대명사에도 개념을 달리하여 확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누구’, ‘무엇’, ‘어떤’과 같은 다른 부정사의 경우 화자가 담화상에서 이들 표현을 불특정적으로 사용해도 그 표현 자체는 어떤 대상을 한정하여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는 그 대상 자체가 확정되고 한정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대상을 지시할 수 없다. ‘아무’가 [-지시적] 자질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13) ‘그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녀는 아무 잘못을 안 했다.’처럼 ‘아무’가 ‘아무도’, ‘아무나’ 외에 격조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전칭 부정이 되어 ‘아무도’와 같은 기능을 나타낸다.
- 14) ‘-나’, ‘-도’ 외에 보조사 ‘-라도’는 ‘아무’에 직접 결합되어 사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라도’는

### 3. ‘아무리하다’의 활용 제약과 극성

#### 3.1. 파생어 ‘아무리하다’의 활용 제약과 극성

‘아무리하다’는 ‘아무’에 ‘-리하다’가 결합되어 파생된 형용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아무 + 리 + 하다’가 된다. ‘-하다’는 접미사로 분석되지만 ‘-리’를 따로 떼어 분석하지 않고 편의상 ‘-하다’와 통합된 형식의 접미사로 본다면 이는 지시사 ‘이/그/저’에 ‘-리하다’가 결합되어 ‘이/그/저리하다’가 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파생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이/그/저리하다’가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이/그/저와 같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이는 ‘이/그/저’로 지시되는 상태, 모양, 성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된다. ‘아무’의 지시 자질이 변하지 않은 중세/근대 국어에서 ‘아무’가 [+고정적] 자질을 지닐 수 있어 [+특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을 때는 오늘날 다른 부정(대명)사처럼 ‘아무리하다’가 [±지시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아무’가 [-고정적] 자질을 가진 현대국어에서는 ‘아무’를 어기로 하는 ‘아무리하다’도 어떤 구체적인 상태를 지시할 수 없다. 결국 ‘아무리하다’는 ‘아무’의 경우처럼 그 자체 형식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다른 부정사 ‘어떠하다’와 다른 점이다.

- (1) ㄱ. <sup>??</sup>이로는 그곳 상황이 아무리하다고/아무렇다고 이미 나에게 말해 주었다.  
 ㄴ. 이로는 그곳 상황이 어떠하다/어떻다고 이미 나에게 말해 주었다.

‘어떠하다’는 ‘어떤’의 경우처럼 [±특정성]을 가질 수 있는바, [+고정적] 자질을 지니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쓰일 때도, 즉 화자가 사태를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없어도 그 사태는 어휘적으로 지시될 수 있으나 ‘아무리하다’는 ‘아무’가 [-고정적] 자질을 지녀 [-특정적]으로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상태의 한정적 지시성을 확보할 수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아무리하-/아무렇-/은’-도’가 결합된 형태로 부정문에서 쓰일 수 있다.<sup>16)</sup>

공정문에서만 사용되는데, 이는 기원적으로는 계사 ‘이-’에 결합되는 형식이며 양보에 의한 선택과 관련된 보조사로서 ‘-나’, ‘-든지’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 15) 참고로 줄고(2011)에서 제시한 ‘아무도’, ‘아무나’의 성립 원리를 약간 수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무도’의 성립: ‘아무’는 그 외연이 비고정적이어서 한정적 대상을 나타내지 못해 이의 존재를 요구하는 다른 조사가 결합될 수 없다. 그러나 ‘-도’가 결합되어 ‘아무도’ 형식이 부정 문맥에서 쓰일 경우, 전칭 부정이 되어 담화의 영역 안에 포함되는 대상 전체가 언급되는 결과가 됨으로써 한정적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립된다.

‘아무나’의 성립: ‘아무나’는 ‘-나’의 선택적 의미 가능성으로 인하여 담화 범위상의 여러 구성원 중에서 하나를 무작위적이고 불특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택되는 대상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정적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어 그 성립이 가능해진다.

- 16) 어떤 어미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현대국어에서 ‘아무리하다’보다 축약형 ‘아무렇다’가 더

- (2) ㄱ. 주희가 아무렇지도 않다.  
 ㄴ. 고추밭이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이 보조사의 도움으로 실현될 때도 ‘-도’ 외에 다른 보조사는 제약된다.

- (3) ㄱ. 철수는 아무렇지\*는/\*조차/\*야/\*나 않다.  
 ㄴ. 고추밭이 아무렇지\*는/\*조차/\*야/\*나 않다.

‘아무렇’이 ‘아무렇지도 않다’ 형식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무도’가 부정문에서만 성립되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아무’는 [-고정적] 자질을 가져 외연으로서 실체를 한정하여 지시할 수는 없지만 담화 세계에서 그 자매항으로서 대상을 전제한다.<sup>17)</sup> ‘아무렇다’의 경우도 ‘-도’가 결합되어 ‘아무렇지도 않다’가 되면 ‘아무렇다’가 사태와 관련된 지시와 관련된 표현이므로 담화 영역에서 사태 관련 자매항이 설정된다. 즉, (2ㄱ)의 경우 ‘배탈 나다, (얼굴이) 붓다, 수척하다, 아프다……’와 같은 담화상의 자매항이 설정될 수 있으며 (2ㄴ)에서는 ‘(고추가) 떨어지다, 마르다, 쓰러지다, 병에 걸리다……’ 등의 자매항이 설정될 수 있다. ‘아무렇지도’가 부정문에서 가능한 이유는 이 형태로 부정문에 쓰일 경우 담화의 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자매항이 부정되는 전칭부정이 되어 담화의 영역에 포함되는 자매항 전체가 언급되는 결과가 됨으로써 담화 세계의 자매항을 포괄적으로 한정하여 지시할 수 있는 효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sup>18)</sup>

자연스럽게 쓰인다. ‘아무러하다’는 중세국어에서 축약된 형식 ‘아무라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때 이른 시기부터 축약형 ‘아무렇’이 더 빈번하게 쓰였다고 할 수 있다.

- 17) ‘아무도 안 왔다’는 자매항으로서 ‘철수, 미자, 동수, 진규’ 등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문장은 이들 중 온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그런데 이 경우 문제는 ‘아무도’의 경우와 달리 ‘아무렇지도 않다’에서는 ‘-도’가 생략되어도 무방하다는 사실이다.

- (i) 주희가 아무렇지 않다.  
 (ii) 우리 고추밭이 아무렇지 않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위에서 실제로 ‘-도’가 결합되지 않고 ‘아무렇지 않다’가 성립된다면 이는 ‘-도’의 의미에 따른 ‘아무렇지도 않다’의 성립에 관한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앞서 보았듯이 ‘아무러하다’는 ‘아무’가 [-고정적] 자질을 가지므로 한정적인 상태를 지시하지 못해 구체적인 개념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무’가 [-고정적] 자질을 지닌다면 부정이 어떤 개념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용상 ‘아무렇지 않다’ 자체로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무렇지 않다’는 표면상 ‘-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내재적으로는 ‘-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를 갖지 않은 위 예문도 실제로는 담화상에서 자매항이 설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이 ‘-도의 내재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실제적



한편 ‘아무러하다(아무렇다)’가 긍정형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아무’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선택과 관련된 ‘-나’에 대응되는 연결어미인 ‘-거나’, ‘-든지’ 등이 ‘아무러하다/아무렇다’를 성립시켜야 할 것이다.

- (4) ㄱ. 그곳 날씨가 (으)아무러하거나/아무렇거나 우리는 갈 거야.
- ㄴ. 그곳 날씨가 (으)아무러든지/아무렇든지 우리는 갈 거야.

(4)에서 ‘아무러하다/아무렇다’의 자매항으로 ‘답다, 춥다, 시원하다, 습하다, 건조하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무나’의 논리로라면 ‘아무렇다’도 선택의 ‘-거나’, ‘-든지’에 의해 담화 세계의 자매항 중에서 무작위적인 선택을 통해 한정적인 지시를 확보할 수 있어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예문은 우리의 가정과 부합된다. 그러나 ‘아무러하-/아무렇-’에 다른 어미가 결합된 형식은 성립하지 않는다.<sup>19)</sup>

- (5) ㄱ. \*우리는 조건이 아무러해야/아무래야 된다고 미리 말했다.
- ㄴ. 우리는 조건이 어떠해야 된다고 미리 말했다.
- (6) ㄱ. \*나는 이쪽 형편이 아무러해서/아무래서 안 되겠다고 전했다.
- ㄴ. 나는 이쪽 형편이 어떠해서 안 되겠다고 전했다.

예문에서 보듯이 ‘어떠하다’와는 달리 ‘아무렇다’에 다른 연결어미가 결합되면 비문이 된다. 즉, 다른 어미는 ‘아무러하다’를 실현형으로 성립시키지 못하고 오직 ‘-거나’, ‘-든지’ 등만 성립시킨다.

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도’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구문에서 주어로 제시된 존재는 어떤 사태와 필연적으로 관련된다는 사실이 화용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제시될 수 없는 ‘아무렇지 않다’ 표현과 연결될 경우 그 문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잉여적이 될 수 있어 생략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무렇지가 않다’에서와 같이 주격조사 가 ‘아무렇지’에 결합되는 것도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아무’가 자매항을 설정하는 강한 내재적 힘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가’는 다만 강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외현상 ‘아무렇지만 않다’도 성립되는데 이는 ‘아무렇지(도) 앓기만 하다’의 변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19) ‘-도’가 결합되어 전칭 부정을 나타내거나 ‘-나’가 결합되어 자유 선택을 나타내는 방법은 ‘아무’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정(대명)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어떤 학생도 안 왔다.’나 ‘어떤 학생이든지 여기서 공부할 수 있다.’는 각각 전칭 부정이나 자유선택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아무렇다.’만 ‘-도’에 결합되어 전칭부정으로 쓰이고 ‘-거나’, ‘-든지’에 결합되어 각각 상태의 전칭부정이나 자유선택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다/어떻다’도 이들 어미가 결합되어 상태의 전칭 부정이나 자유 선택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정(대명)사의 경우는 [±특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시적] 자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아무’와 다른 부정대명사와의 근본적인 차이다.

한편 이들 ‘-거나’, ‘-든지’ 등 선택과 관련된 어미뿐 아니라, 양보의 ‘-나’들도 ‘아무리하-/아무렇-/’을 자연스럽게 성립시킨다.

#### (7) 우리 집 형편이 아무리한들/아무런들 그 집만 못하겠나?

(7)은 적격한바, 이는 ‘-나’들의 양보적 의미를 기반으로 하는 선택의 결과로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양보는 가정과 관련되는데, 이는 사물이든 사태든 어떤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보는 선택의 행위와 유사성이 있어 무엇인가 한정된 지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나’들이 ‘아무’에 결합되면 담화 영역의 구성원 중의 한 대상을 그것이 무엇이든 한정 가능한 지시 대상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아무런들’이 성립되는 것이다.

## 4. ‘아무’ 계열 어휘의 품사별 어형과 어휘화

### 4.1. ‘아무’ 계열 어휘의 목록

사전에 따르면 ‘아무’는 그 자체로 대명사, 관형사로 쓰이며, 기원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합성어나 어휘화된 형식으로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감탄사 등 20여 항목이 존재한다. 앞에서 우리는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화된 공시적 관점에서의 ‘아무’와 ‘아무리하다(아무렇다)’는 특이한 방식으로 실현됨을 확인했다. ‘아무’의 의미 자질이 바뀌기 전에는 다른 부정사 처럼 ‘아무’, ‘아무리하다’는 특정한 보조사나 어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문맥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문제는 ‘아무’를 어기로 하는 ‘아무’ 계열 어휘들이 형성될 당시 ‘아무’의 의미 자질 변화의 여부이다. ‘아무’계열 어휘들은 ‘아무리’를 제외하면 ‘아무’를 어기로 하는 합성어이거나 기원적으로는 ‘아무리하다’의 활용형, 혹은 ‘아무리하다’의 활용형과 통사적 구성을 이루고 있었던 형식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들이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한 이후에 통사적 구성으로 쓰이거나 활용형으로 쓰이던 것이 굳어진 것이라면 이들이 활용형이나 통사적 구성으로 존재할 때는 생성 당시에 ‘아무’ 계열 어휘들의 실현형에 제약이 존재했을 것이고 또한 극성도 띠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극성 변화 전에 ‘아무’ 계열 어휘들이 통사적 구조나 활용형으로 쓰이다가 어휘화되었다면 이들이 어휘화되기 이전에는 이들 형식이 실현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극성과 같은 특별한 문법 자질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이 경우는 현재의 부정(대명)사 ‘누구, 무엇, 어떤’ 등이 조사를 취하고 통사적 구를 이루거나 ‘어떠하다’가 특이한 문법 자질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처럼 실현되었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어휘화된 이들 형식들은 ‘암만(하다)’처럼 ‘아무’의 형태가 투명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

고는 현대국어에서 의미 자질이 변한 ‘아무’의 실현 방식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거나’, ‘-든지’, ‘-ㄴ 들’ 외에 ‘아무렇다’가 의미 자질이 변하기 전에 가능할 수 있었던 활용 형이 어휘화된 예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를 어기로 갖는 다른 경우도 오늘날 ‘아무’의 극성 자질에 근거해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것들이다.<sup>20)</sup>

이제 본고에서는 ‘아무’ 계열 어휘들의 형성을 조어법과 어휘화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바, 이들의 실현 방식과 극성을 포함한 ‘아무’의 어휘 자질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전에 등재된 ‘아무’ 계열 어휘들을 목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현대국어 ‘아무’ 계열 어휘 목록

대명사	관형사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감탄사
아무 아무개 아무것 아무아무	아무 아무런	아무짝 암만	아무러하다/ 아무렇다	암만하다	아무리 아무래도 아무려면 아무쪼록 아무튼 아무튼지 암만 모쪼록	아무려나 아무려면 아무렴 아무리

## 4.2. ‘아무’ 계열 어휘의 어휘화

### 4.2.1. 대명사 ‘아무’, ‘아무개’, ‘아무것’, ‘아무아무’

‘아무’는 사전에 부정 인칭대명사로 기술되어 있다. 실제 구어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아무’의 부정대명사로서의 기능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아무’의 어휘 자질이 변하기 전에 형성된 것으로서 사어화된 화석형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또한 ‘아무’를 어기로 하는 대명사로서 ‘아무개’, ‘아무것’, ‘아무아무’ 등이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와 있다. 이들도 현대국어 특히 구어에서는 쓰임이 제한적이다. 이들은 ‘아무’의 자질이 변하기 전에 형성된 화석화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무것’은 대명사로 화석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무’와 ‘것’이 결합된 통사적

20) ‘아무’ 계열 어휘들 중 ‘아무도’, ‘아무나’, ‘아무’, ‘아무짝’, ‘아무렇다’는 극성을 띠며 ‘암만하다’, ‘아무려면’, ‘암만’, ‘아무려면’, ‘아무리’ 등은 특정한 문맥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나머지 몇 항목은 극성을 포함한 특별한 문법 자질을 갖지 않는다.

21) 사전에서도 ‘-도’, ‘-나’와 함께 쓰이며 극성을 지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자체로 격조사가 결합될 수 없고 ‘-도’, ‘-이나’ 등과 결합하여 성립될 수 있는데 전자와 결합되면 부정극성을, 후자와 결합되면 긍정극성을 보인다.<sup>22)</sup>

#### 4.2.2. 관형사 ‘아무’, ‘아무런’

##### (1) 아무

‘아무’는 명사 앞에 와서 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므로 관형사로도 쓰인다. 그러나 앞서 확인했듯이 ‘아무’가 관형사로 기능하면 이것이 수식하는 명사에 조사가 결합될 수 없고 보조사 중에 ‘-도’나 ‘-만’과만 통합되어 쓰일 수 있으며, ‘아무도’나 ‘아무나’와 같이 극성을 띤다. 이는 ‘아무’가 의미 자질이 바뀐 것으로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어휘이므로 당연한 현상이다.

##### (2) 아무런

현대국어 ‘아무런’도 이것이 수식하는 명사가 보조사 ‘-도’, ‘-나’와 결합되어 ‘아무런 + N + 도/(이)나’ 형식으로 쓰이며 극성을 띤다.

- (8) ㄱ. \*길가에 아무런 꽃이 피어 있었다.  
 ㄴ. \*미나는 아무런 음식을 먹는다.
- (9) ㄱ. 미나는 아무런 노래도 안 불렀다/\*불렀다.  
 ㄴ. 그들은 아무런 음식도 잘 안 먹었다/\*먹었다.
- (10) ㄱ. 미나는 아무런 노래나 잘 불렀다/\*안 불렀다.  
 ㄴ. 그들은 아무런 음식이나 잘 먹는다/\*잘 안 먹는다.

‘아무런’이 수식하는 명사는 ‘아무’의 경우처럼 격조사가 통합될 수 없고 (8), ‘-도’, ‘-나’가 통합되어야 쓰일 수 있으며 (9, 10), 이 ‘아무런’+ N도와 ‘아무런 + N이나’가 각각 부정문과 긍정문에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아무런’의 실제적인 실현 방식이 ‘아무’의 실현 방식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아무런’의 어기가 공식적인 ‘아무’의 의미 자질을 지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아무러하다’의 활용형으로 나타나는 ‘아무런’의 극성은 ‘아무렇다’의 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 ‘아무런’이 ‘아무러하다’의 활용형인지 관형사로 굳어진 형식인지가 문제다.

22) 음성판 <국어대사전>에는 ‘아무것’이 대명사로 올라와 있지 않다.

만일 ‘아무런’이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하기 전에 관형사로 굳어진 형식이라면 이것이 쓰이는 구성의 형식이나 극성이 문제가 된다. ‘아무런’이 의미 자질 변화가 있기 전에 굳어진 형식이라면 이는 현대국어 ‘어떤(어떠한)’과 같은 성격을 지녔을 것이므로 반드시 ‘아무런 + N + 도/나’ 형식을 띠 필요도 없고 극성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sup>23)</sup>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아무런’이 특정한 방식으로만 실현되고 극성을 띠는 점에서 ‘아무런’이 ‘아무’의 의미 자질 변화 이전에 관형사로 어휘화되었다면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하기 전에 형성된 어휘도 후대에 어휘 형식 중의 일부인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함에 따라 그 의미 자질이 이미 형성된 어기 ‘아무’에 간섭을 일으켜 의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그 실현형과 극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문헌에 현대국어 ‘아무런’은 중세국어에서는 ‘아므란’<sup>24)</sup>, 근대국어에서는 ‘아므란’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조어사전>에서 관형사로 처리되어 있다.<sup>25)</sup> 만약 사전의 처리대로 ‘아무런’이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하기 전에 관형사로 쓰였다면 의미 간섭과 관련한 주장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러하다(아무렇다)’가 공식적으로 극성을 지니고 있는바, 이의 활용형 ‘아무런’의 극성이 여기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현대국어에서 ‘아무런’은 사전에 관형사로 처리된 중세국어 ‘아므란(아므란)’과는 무관하게 ‘아무렇다’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입장이, 중세국어에서 ‘아므란’이 어휘화되었다 해도 이는 현대국어 ‘어떤’처럼 수식하는 명사에 조사도 자유로이 결합될 수 있어 특정한 실현형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날 ‘아무’의 의미 자질의 영향으로 인해, 특별한 형식인 ‘아무런 + N + 도/나’로만 실현될 수 있으며 극성을 띠는 식으로 변했다고 보는 입장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sup>26)</sup>

### 4.2.3. 명사

‘아무’에서 나온 명사로써는 사전에 등재된 것은 ‘아무짝’이 유일하다.

(11) ㄱ.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있어요.

ㄴ. 그것은 아무짝도 소용이 없어요/\*있어요.

- 
- 23)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하기 전에는 ‘나는 민호에게 어떤 책을 사오라고 말했다’에 대응하는 문장에서 ‘어떤’ 대신에 ‘아무런’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었다.
- 24) ‘아므란’이 금강경삼가해(1482)에 나타난다(아므란 사르미 비록 能히 壽命을 버려 아라도(금강경삼가해 5, 48). 이때 ‘아므란’은 긍정문에 나타나므로 극성을 띠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25)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아무런’을 활용형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이 부정 문맥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전칭부정)와 실현형(아무런 + N + 도)을 근거로 ‘아무런’을 관형사로 등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이 긍정 문맥에서도 ‘아무런 + N(이나)’ 형식으로 실현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기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성판 국어대사전>에는 ‘아무런’을 ‘아무러하다’의 활용형 ‘아무러한’으로 처리하고 있다.
- 26)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조어사전>에 관형사로 처리된 것은 사실은 관형사가 아니고 관형형이라고 보는 방법도 있다.

‘아무짝’은 위에서 보듯이 처격조사 ‘-에’가 결합된 ‘아무쪽에’에 특수조사 ‘-도’가 결합되어 부정문에만 쓰일 수 있다. ‘아무도’가 극성을 띠는 이유는 당연히 ‘아무’의 지시 관련 속성에서 기인한다. ‘아무짝’에 ‘-나’가 결합된 형식은 ‘아무 + N + (이)나’의 형식과 같이 긍정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으나 다음에서 보듯이 이 형식은 쓰이지 않는다.

(12) ㄱ. \*아무쪽에나 쓸 데가 있다.

ㄴ. \*아무쪽에나 소용이 있다.

‘아무쪽에나’가 성립될 수 없는 사실은 이 형식이 어휘화된 형식으로서 굳어졌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사전에서 ‘아무짝’을 “‘아무 데’를 비하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무 데’는 ‘아무 + N’ 형식으로서 이는 ‘아무 + N도/나’ 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아무짝’이 ‘아무쪽에도’ 형식으로 부정 문맥에서만 쓰이며 이것도 ‘쓸모없다’, ‘소용없다’, ‘필요없다’와 같이 특정한 ‘용도’ 관련 표현이 이루는 부정문에서만 쓰인다는 사실은, 이 형식이 속되게 쓰이는 특정한 부정 문맥에서 ‘아무 데도’의<sup>27)</sup> ‘데’가 장소를 나타내는바, 이 ‘데’가 의미상의 유연성에 기초하여 한 쌍의 다른 일부를 나타내는 ‘짝’으로 대체되어 어휘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게 한다.

‘아무’ 계열 어휘 중 명사 ‘암만’이 있는바, 사전에 ‘밝혀 말할 필요가 없는 값이나 수량을 대신하여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sup>28)</sup> ‘암만’의 의미가 값이나 수량 따위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만큼’에 소급하는 ‘만’과 의 통사적 구성 ‘아마 + 만’에서 기원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만’ 형태가 탈락된 것은, 중세/근대 국어에서 ‘만’이 현대국어의 정도를 나타내는 ‘만큼’에 소급하는 형식으로 쓰였는바, 이들의 의미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만’으로도 ‘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암만’은 기원적으로는 ‘아무(아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극성을 띠지 않는바, ‘암만’이 융합된 형식으로서 공식적으로 ‘아무’가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4.2.4. 형용사

‘아무’에 ‘-러하다’가 결합되어 파생된 ‘아무러하다’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쓰일 수 없고 ‘아무도/나’의 성립 원리와 같이 ‘아무러하(아무렇)거나/든지’, ‘아무러한들(아무런들)’로<sup>29)</sup> 실현될 수 있다.<sup>30)</sup> ‘아무러하(아무렇)거나/든지/ㄴ 들’은 후행절을 선행

27) 이에 대응되는 표현 ‘아무데(에)도’는 부정 문맥에서만 쓰이지만 공기하는 서술어에도 제약이 없다.

28)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아무’ 계열 어휘와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한다.

29) ‘아무러한들’의 축약형 ‘아무런들’은 활용형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으나 부사로 굳어진 용법도 갖는다고 할

하는 접속어미를 기반으로 형성되므로 후행절에 대한 긍정 극성을 요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성립된다. ‘아무리하(아무렇)거나/든지’ 형은 형용사의 활용형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어떠하(어떻)거나/든지/ㄴ들’ 등에 비해 그 사용이 활발하다고는 볼 수 없다.

축약되지 않은 형 ‘아무리하다’는 관형형 ‘아무리한’으로 쓰여 ‘아무리한 + N + 도/나’의 형식으로는 부정문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한’은 ‘아무란’과 달리 ‘-거나/든지’를 취하여 ‘아무리한 + N + (이)거나/든지’의 형식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활용으로서의 용법에 제약을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아무리한’은 ‘아무런’으로 축약되어 관형사/형으로서 쓰이는바, 이때는 앞서 보인 바와 같이 긍정극성, 부정극성을 모두 갖는다.<sup>31)</sup>

한편 ‘아무렇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된 ‘아무렇게’에는 ‘-도’는 결합될 수는 없으나 ‘-나’가 결합된 형식으로 쓰이며 이는 긍정 극성을 띤다.<sup>32)</sup> 그러나 이것은 부사로 어휘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2.5. 동사 ‘암만하다’

사전에 동사로 등재된 ‘암만하다’는 ‘암만해도’의 형식으로 쓰이는데, ①이리저리 애를 쓰거나 노력을 들이다. ②이리저리 생각하여 보다.’의 뜻을 가진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 ‘암만하다’도 그 조어 방식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아무리 해도’와 의미가 유사하며, ‘아도’와 같은 양보의 연결어미와 같이 쓰인다는 점, 또한 ‘암만’이 명사로서 ‘밝힐 필요가 없는 값이나 수량 따위를 대신하여 이르는 말’로 풀이하여 표제어로 등재되고 ‘암만<아모만<아미만’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와 형태,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암만’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는 것인바, 명사 ‘암만’에 대한 논의에서 주장되었듯이 ‘아미’에 ‘만싼’과 결합된 형식 ‘아미 + 만싼’에서 기원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sup>33)</sup> 따라서 ‘암만하다’는 아미만싼’에 ‘싱각하다’가 결합되어 ‘아미만싼 싱각하다’와 같은 구조에서

수 있다. 사전에 ‘아무런들’이 부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사로도 등재되어야 할 것이다.

30) ‘-거나/든지’는 ‘아무리하’보다는 ‘아무렇’에 결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아무리하’에 ‘-ㄴ들’이 결합되는 경우는 축약형이 아니라 원형이 더 자연스럽다.

31) ‘아무런’은 ‘아무런 + N + 도/나’ 형식 외에 주격조사 ‘가’, 대격조사 ‘을’을 가진 형식으로 활발히 사용된다. 이는 이 구성이 항상 전칭부정을 나타내며 따라서 ‘아무런’이 [+지시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에 가능한 일이다. 요컨대 N 뒤에 다른 조사가 와도 이는 ‘-도’를 가진 형식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32) ‘아무렇게나’는 긍정 극성어지만 부정 문맥에서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가 나타나는 표면상의 부정문은 긍정 전제문을 가지므로 부정 문맥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그는 책을 아무렇게나 읽지 않는다.’는 ‘그는 책을 읽는다.’는 전제를 가지므로 ‘아무렇게나’는 안 읽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읽는 방식을 나타낸다. 이 문장은 ‘그는 책을 아무렇게나 읽는 것이 아니다.’를 의미한다.

33) 이 형식은 ‘아무’의 극성 변화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조사 등의 장치 없이 형성된다.

‘만칸’이 역시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적으로 유사한 보조사 ‘만’으로 교체되고 ‘싱각하다’가 대동사 형식 ‘하다’에 의해 대치됨으로써 나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sup>34)35)</sup>

#### 4.2.6. 부사

##### (1) 아무리

부사 ‘아무리’는 사전에 ①(연결어미 ‘-아도/어도’가 붙은 동사와 쓰여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 ②비록 그렇다 하더라도’로 풀이되어 있다. ‘아무리’는 ‘아무’에 ‘-리’가 결합된 형식이다. 여기서 ‘-리’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그/저’에 ‘-리’가 결합되어 ‘이/그/저리’가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아무리’도 ‘아무’에 연격(沿格)어미 ‘-리’가 결합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아무리’는 지시사 ‘이/그/저’에 ‘-리’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아모’에도 결합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연격 ‘-리’가 결합된 ‘이리’가 ‘이 곳/쪽으로’라는 의미와 ‘이렇게’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생각하면 부정사 ‘아모’에서 파생된 ‘아무리’는 문자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곳/쪽으로’와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의 뜻을 나타내는 현대국어 부정사적 용법의 ‘어떻게’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sup>37)</sup> 후자의 의미는 문헌에서 확인된다.

‘아무리’가 ‘어떻게’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이리’가 ‘이렇게’를 의미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sup>38)</sup>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

34) 물론 이는 역사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그 사실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혹시 ‘아무’에 ‘만칸’이 아니라, 동안이나 기간이 계속됨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명사 ‘만’과 ‘싱각하다’가 결합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문제는 역사적인 문헌 자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암만하면’을 고려하면 ‘암만’과 통합되는 것은 ‘생각하다’가 아니고 단순히 대동사 ‘하’일 수도 있다.

35)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는 ‘암만하다’는 표제어로 실지 않고 이의 활용형에서 어휘화했다고 볼 수 있는 ‘암만해도’를 부사로 실고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암만하다’가 ‘암만해도’의 꼴로 쓰인다는 정보와 함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36) 이기문(1962)에서는 알타이 제어에서 연격(沿格) 어미 ‘-리’가 재구된다고 보고 중세국어 현대국어의 ‘이리/저리/그리’의 ‘-리’가 그것에 기원한다고 본다.

37) 고어형 ‘아무리’가 전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는지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후자의 의미는 사실 이 단어의 형식을 고려하면 현대국어 ‘아무렇게(나)’(어떻게)의 의미가 될 것이다(예: 그 일은 {아무렇게(나), 어떻게} 해도 괜찮아.) 이는 ‘아무렇’의 활용형인바, 현대국어에서 ‘아무’가 극성을 지녀 ‘아무렇’의 활용형 ‘아무렇게’는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고 선택을 나타내는 보조사 ‘-나/든지’와 결합되어야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가 자질 변화를 겪기 전에는 이런 제약이 없었다. 따라서 ‘아무리’가 자질 변화를 입기 전의 의미는 양보 구문에 쓰이는 ‘어떻게’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이 의미는 문헌에서 확인된다. ‘그 겨집이 두려 아무리 흘 줄을 몰라 제집으로 드라 나왔더니(태평1, 9)’의 예에서 ‘아무리’는 현대국어의 ‘어떻게’로 해석된다.

38) ‘이리’가 기본적으로 ‘이쪽으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생각하면 이 의미에서 ‘이렇게’라는 ‘방식’의 의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가 중세국어에서 가졌던 ‘어떻게’의 의미는 현대국어에서 소멸되었다. 즉,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를 쓸 자리에 ‘아무리’를 쓸 수 없다.<sup>39)</sup> 이는 ‘아무’의 의미 변화를 고려하면 당연하다. ‘어떻게’는 양태(manner)를 나타내는데 ‘아무리’는 ‘어떻게’와 달리 [-지시적]으로만 해석되어 지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양태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리’는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와 같이 양보의 어미를 취하여 ‘아무리 ~해도’와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sup>40)</sup> 이 구성은 극단 가정의 양보를 나타내는데, 결국 ‘아무’의 [-고정적] 자질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은 어떤 사태를 한정화하여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한정적 지시성을 확보하여 부정적으로 쓰이는 ‘어떻게’와 유사한 의미로 쓰일 수 있어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의 또 다른 의미로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의 의미가 있다(예: 아무리 동생이 너한테 덤뻤다 해도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해?). 이때 ‘아무리’는 부사 ‘암만’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 의미는 정도와 관련된 ‘아무리’ ①의 의미가 정도와는 무관한 문맥으로 확장되어 단지 극단적 양보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데서 기인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sup>41)</sup>

## (2) 아무래도

‘아무래도’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또는 ‘아무리 이리저리 하여 보아도’의 뜻으로 기원적으로는 ‘아무리 + ㅎ + -어 + -도’로 분석된다. 이는 원래 통사적 구성이었으나 축약과 융합을 거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는 부사로만 쓰이는데, ‘아무리 하여도’와 같은 통사적 구성이 어휘화된 것이다.<sup>42)43)</sup>

## (3) 아무려면

‘아무려면’은 사전에서 ‘있기 어려운 경우나 상태를 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의문문에 쓰인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단어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면’이 조건을 나타내는 연

미가 확장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39) ‘아무리’의 의미 변화는 흥미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무’의 자질 변화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으며 ‘아무’ 계열 어휘의 의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0) 雲長이 아프리 ㅎ여도 머무지 아니리라.<삼역총해 2, 7>

41) ‘아무리’ 형태는 감탄사로도 쓰인다(이는 후술됨).

42) 부사 ‘아무리’가 양보를 나타내는 어미 ‘-아도’가 쓰인 구성에서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앞 내용 참고.

43) ‘아무려도’ 형이 이미 어록해(1657) 초간본에 보인다는 점에서 이 형식도 오래 전에 어휘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결어미 ‘-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무’의 형태를 그대로 보인다는 점과 조건의 접속어미 ‘-면’을 고려할 때 ‘아무려면’은 기원적으로 ‘아무리하다’의 활용형 ‘아무리하면’에서 ‘하-’가 탈락되어 융합 형태의 활용형으로 쓰이다가 부사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아무리하다’가 극성을 지녀 ‘아무리하면’은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으나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하기 전에는 접속어미와의 결합 제약이 없었으므로 ‘어떠하면’이 성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하면’이 성립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국어에서 ‘아무려면(아무리하면)’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바, 이는 부사화된 ‘아무려면’의 성립 과정의 설명을 위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sup>44)</sup> 현대국어에서 ‘아무려면’ 자체는 ‘아무’가 [-고정적] 자질을 지녀 어떤 상태를 한정하여 지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하면(아무려면)’이 설의법 후행절과 호응되면 이 절이 겹으로 드러난 의미와 반대의 의미로 해석되게 되므로 이는 극단적인 조건 하에서도 후행절 사태가 성립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하나의 사태가 선택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상이 고정되고 한정적 지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후행절이 설의법으로 쓰이면 ‘아무리하면’은 성립가능해지는 것이다. 설의법 문장에서 ‘아무리하면’, ‘아무려면’이 모두 쓰일 수 있으나 축약형인 후자는 활용형으로 쓰인다고보다 부사적으로 쓰인다고 해야 할 것이다.

#### (4) 아무쪼록

부사 ‘아무쪼록’은 근대국어에서 ‘아못도로나’(‘아모 + ㅅ + 豆(條) + 로 + 나’)(첩해신어 4: 27)로 나타난다. 이 ‘아무쪼록’은 이 구조에서 ‘-나’가 탈락되고 ‘-ㄱ’이 첨가된 형식이다. 이 구성은 선택의 보조사 ‘-나’를 갖는다는 점에서 표면상 ‘아무 + N(이)나’ 구성과 같은 원리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무’는 ‘어떤’이나 ‘무슨’에 대응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은 ‘아무 조항/조목으로나(어떤 조항/조목으로나)’의 구성으로서, ‘여럿 가운데서 가리지 않고 어떤 조(목으)로든지’와 같은 선택적 의미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원적으로 이 어휘의 사전적 의미인 ‘될 수 있는 대로’와 관련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은 통사적 구성이 부사로 어휘화한 것으로서 ‘아무’라는 투명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극성을 띠지 않는다. 이는 이 어형이 17세기 후반 자료에 보이는바, ‘아무’의 의미 자질 변화 이전에 형성되었으므로 극성을 띠지 않았었고, 또한 ‘쪼록’이 ‘아무’가 수식하는 체언으로 인식될 수 없어 ‘아무’의 의미 기능을 공식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45)</sup>

44) 이 문제는 ‘아무’의 극성 변화 이후에 ‘아무려면’이 ‘아무리하면’의 축약형으로서 활용형으로 쓰이다가 부사로 굳어졌다고 보는 것을 전제한다. 실제로는 ‘아무려면’이 ‘아무’의 극성 변화 이전에 생성되었을 수도 있다.

45) ‘아무쪼록’과 동의어로서 ‘모쪼록’이 있는바, 이는 ‘아무쪼록’에서 어두음절이 탈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5) 아무튼(지)

이는 ‘아무러하 + 든(지)’로 분석된다. 형용사 ‘아무러하다’의 성립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다. ‘아무튼(지)’은 ‘아무러하다’의 활용형 ‘아무러하든(지)’에서 축약되어 ‘아무렇든>아뿔든>아무튼’의 과정을 거쳐 부사화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기본형 ‘아무러하다’는 중세국어에서 ‘아므라타’로 나타나는바, ‘아무튼’은 중세국어 ‘아마랏’에 소급하는 형식에 ‘-든’이 결합하여 어휘화한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중세국어에서 활용형 ‘아무렇든’에 소급하는 형식이 쓰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제지만 적어도 ‘아무렇든’의 축약형 ‘아무튼’은 형용사 ‘아무렇다’의 활용형이 아니고 부사로 어휘화된 형식이다. ‘아무러하든지’는 그 자체로 성립되며 앞서 언급했듯이 극성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형식이 부사화된 형식도 극성을 띠지 않는다.

## (6) 암만

‘암만’의 형성에 대해서는 명사 ‘암만’에서 다룬 바 있다. 부사 ‘암만’은 명사 ‘암만’과 형태가 동일하나, 부사는 명사와의 품사 통용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겠으나 부사 ‘암만’의 문법 자질을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사 ‘암만’은 특정한 문법 자질을 갖지 않으나 부사 ‘암만’은 양보문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사 ‘암만’은 동사 ‘암만하다’의 어근 ‘암만’이 분리되어 독립성을 지닌 부사로 쓰인다고 해야 할 것이다.

### 4.2.7. 감탄사

#### (1) 아무려나

감탄사 ‘아무려나’는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승낙할 때 쓰는 말이다. 이의 사전적 뜻풀이와 그 형태와 의미 간의 투명성을 고려하면 이 형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아무려나가’ ‘아무렇게나’의 의미와 승낙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이는 ‘아므라ㅎ게나 ㅎ려므나’와 같은 구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므라ㅎ게나’의 ‘-라ㅎ게나가’ 탈락되어 어근 형식 ‘아무’만 남고 여기에 ‘ㅎ다’의 활용형 ‘ㅎ려므나’에서 어근 ‘ㅎ-’가 탈락된 ‘-려므나가’ 결합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화의 전형적 특징 중의 하나인 복합 어휘소의 단순 어휘소화 과정과(Brinton 2005) 여기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융합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러하게나(아무렇게나)’에서 도출될 수 있는 의미와 허락을 나타내는 ‘-려므나’의 의미를 고려하면 ‘아무려나’는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라’는 의미, 즉, 좋을 대로 하라는 승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2) 아무려니

‘아무려니’는 ‘설마’의 뜻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때 쓰는 감탄사다, 이는 그 형식과 의미를 고려할 때 ‘아마라흐거니’가 설의법 구문에서 쓰일 때 나온 형식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아무’의 지시적 자질이 바뀌기 전에 ‘아마라흐거니(아무리하거니)’는 현대국어의 ‘어떠하거니’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의 지시적 성격이 바뀌기 전에 ‘<sup>2</sup>그곳 형편이 아마라흐거니(어떠하거니), 여기만 못하겠느냐?’와 같은 문장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라흐거니’는 예로 든 문장과 같이 설의법의 후행절과 호응할 수 있다. 즉, 이 구문은 재구형 ‘아마라흐거니(아무리하거니)’가 모든 가능한 후보를 가정하여 극단 가정을 나타내는 선행절을 제시하고 후행절은 설의법으로서 표면적인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담화 상황에서 어떤 상태가 가정되어 선택되어도 문자적으로 나타나는 의문 형식의 후행절 사태가 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이 문장은 극단 가정에서도 후행절이 참이 되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이는 문맥 자체를 고려할 때 선행절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설마’의 의미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아무려니’는 ‘아마라흐거니’에서 접사인 ‘하’와 이에 결합된 어미 ‘-거’가 탈락되어 ‘아무려니’가 되는데 이 형식이 감탄사로 어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려니(아무리니)’가 ‘아무려니’로 나타나는 것은 1 모음 역행동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아무렴

‘아무렴’은 ‘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로 풀이된다. 이는 ‘아무리하다’의 축약형 ‘아무려면’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아무려면’은 앞서 보았듯이 사전에 ‘(주로 의문문에 쓰여) 있기 어려운 경우나 상태를 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되는데,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을 반어적인 의문문으로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아무렴’은 이런 확신의 의미를 가진 부사가 문장에 쓰일 때 다른 문장 성분과는 독립적으로 쓰임으로써 감탄사의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렴’으로 형태가 변화되었다. 즉, ‘아무렴’은 ‘-면’에서 ‘-ㅁ’만 융합형에 남고 나머지 음절 요소는 탈락된 형식인바, 이런 변화는 허락을 나타내는 ‘-려므나’의 축약형 ‘-렴’과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됨으로써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본고는 현대국어 ‘아무’의 의미 자질과 ‘아무’가 실현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아무리하다’

의 활용형 제약을 밝히고, 나아가 현대국어에서 쓰이는 20여 항목에 이르는 ‘아무’를 어기로운 합성어 및 ‘아무’와 관련된 어휘화형의 형태적 구조와 어휘화 과정 및 극성 등과 같은 문법적 자질을 ‘아무’의 의미 자질과 관련하여 밝혀보려고 했다. 부정사 ‘아무’가 근대국어까지도 격조사의 결합 제약이 없었으나 현대국어에서 격조사가 결합될 수 없게 된 이유는 현대국어에서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하였기 때문이며, ‘아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아무’의 의미 변화의 핵심은 이것이 다른 부정사와 달리 [-특정적], [-지시적]으로만 해석되도록 달라졌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무’의 이런 변화를, 다른 모든 명사/언어 표현은 부정사조차도 그것이 나타내는 대상과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고정적이어서 어떤 표현이든 대상 자체를 한정하여 지시하는 것인데, ‘아무’는 비고정성을 갖게 됨으로써 대상을 한정하여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무’에 격조사가 결합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표현이 대상을 한정화할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조사’는 그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그 대상의 외연이 확정적인 것에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가 ‘-도’나 ‘-만’을 취하여 극성 문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 보조사의 의미와 극성 문맥이 ‘아무’를 한정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아무’의 의미 자질과 실현 방식에 기초하여 ‘아무’ 파생 형용사 ‘아무리하다’도 ‘아무’의 실현 원리와 동일한 원리와 방식으로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리하(아무렇)거나/든지’ 형식으로 실현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아무’와 ‘아무리하다’의 의미 자질에 따른 실현 방식과 원리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아무’ 계열 어휘를 대명사, 관형사,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감탄사 등 품사별로 나누어 그 어형의 성립 원리와 문법 자질 등을 ‘아무’의 지시적 속성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그 어휘화 과정을 논의했다.

본고는 ‘아무’의 의미 자질 변화와 무관하게 이미 형성된 ‘아무’ 계열 어휘 전반에 대해 이들의 실현 방식과 문법 자질을 ‘아무’의 의미 자질이 변한 공시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이들 어휘들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사적 자료를 통한 정밀한 검토는 소홀하였다.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논증할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무’의 의미 자질로 본고에서 설정된 ‘고정적’이라는 용어와 개념도 타당한 것인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연구는 그 동안 거의 납득할 만한 논의가 없었던 ‘아무’ 계열 어휘들이 보이는 조사나 어미와의 결합 제약, 이에 다른 실현 형식의 제한성, 극성을 띠는 이유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원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석주. (2008). 조사 '를'의 의미와 실현-선택 지정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208-228.
- 구종남. (2003). 국어 부정극어의 유형. *국어문학*, 38, 5-26.
- 구종남. (2011). '아무'의 지시적 성격과 출현 형태 및 의미적 해석, *한국언어문학*, 79, 5-32..
- 국지연. (2005). 부정 극성에 대한 인지화용론적 접근. *영어학*, 5(3), 501-525.
- 권경원. (2009). 「부정극어 Any에 대한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53(4), 1-25.
- 김미형(1994), 부정칭 대명사와 미지칭 대명사, *한국학 논집*, 24, 237-253.
- 김용범. (2004). 시간 지시에서 한정성과 특정성. *인문사회과학 논문집*, 33, 33-49.
- 김충효. (2000). *국어의 의문사와 부정사 연구*. 박이정.
- 노명희. (2013). 국어의 탈문법화 현상과 단어화. *국어학*, 67, 107-143.
- 시정근(1997가), 국어의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9, 49-78.
- 오규환. (2013). 단어형성 과정으로서의 어휘화. *국어학*, 68, 366-324.
- 유창돈. (1979).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윤영은. (2000). '아무'와 'ANY'. *언어*, 25(3), 455-476.
- 이기문. (1962).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금희. (2013). 국어 부정칭(不定稱) 표현 '아무' 계의 통사적 제약과 의미 변화. *한민족어문학*, 65, 57-87.
- 이동규. (2007). '아무+(N)(이)나'와 'N+든지'의 효과적인 제시 방안 연구. *이중언어*, 35, 이중언어학회, 227-249.
- 이재영 · 엄홍준. (2004), 부정극어와 부정어. *언어*, 29(1), 107-120.
- 이현우. (2004). *영어와 한국어의 부정극어*. 경진문화사.
- 이환목. (1977). 국어 극어와 화용상의 가정. *어학연구*, 3(2), 115-137.
- 임성출. (1998). English Negative Polarity Item 'any' and Korean Counterparts 'amwuto' and 'amwuna', *언어과학연구*, 15, 289-307.
- 임유종. (2005). 부정소 호응 부사에 의한 언어와 사전 기술. *한국언어문화*, 2, 235-256.
- 장향실. (200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아무+명사+(이)나'와 '의문대명사+(이)든지'의 의미 연구. *우리어문연구*, 31, 69-90.
- 최기용. (1998). 한국어의 부정극어 '아무'에 대하여. *생성문법연구* 8(2), 313-341.
- Bauer, L.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Press.
- Bhat, D. N. S. (2004). *Pronouns*. Oxford University Press.
- Brinton, L J. & Traugott E. C. (2005). *Lexicalization and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kin, A. (1971). Polarity Items in Questions. *CLS*, 7, 53-62.
- Carlson, G.N. (1981). Distribution of Free-choice Any. *CLS*, 17, 8-23.
- Dayal, V. (1998). Any as Inherently Modal. *Linguistics and Philosophy*, 21, 443-476.
- Giannakidou, A. (2001). The Meaning of Free Choice. *Linguistics and Philosophy*, 24, 659-735.
- Givón, Talmy. (1984). *Syntax vol.1*.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Haspelmath. (1997). *Indefinite Pronouns*. Oxford: Clarendon Press.
- Ioup, G. (1977). Specific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Quantifier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233-245.
- Krifka, M. (1995).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olarity items. *Linguistic Analysis*, 2, 209-257.
- Ladshaw, W. (1996). Negation and Polarity items. In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ed. Shalom Lappin. 321-341.
- Linebarger, M. C. (1980). *The Grammar of Negative Polarity*. Ph D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Linebarger, M. C. (1987). Negative Polarity and Grammatical Representa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0(3), 325-387.
- Progovac, L. (1994). *Negative and Positive Pol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구종남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63)270-3166

이메일: jnkoo@jbnu.ac.kr

Received on July 12, 2015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18, 2015

Accepted on September 30, 2015